

# COVID-19

코로나19의 경제 및 산업 영향 점검

# Prologue

2019년 글로벌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공급 측면의 리스크로 인해 부진세를 보였다. 다만 2019년 말을 지나면서 미국과 중국간의 긴장상태가 다소 소강 내지는 완화 양상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기의 바닥 탈피에 대한 기대감으로 2020년을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1월 말 중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리스크가 발생했고 이는 글로벌 수요 측면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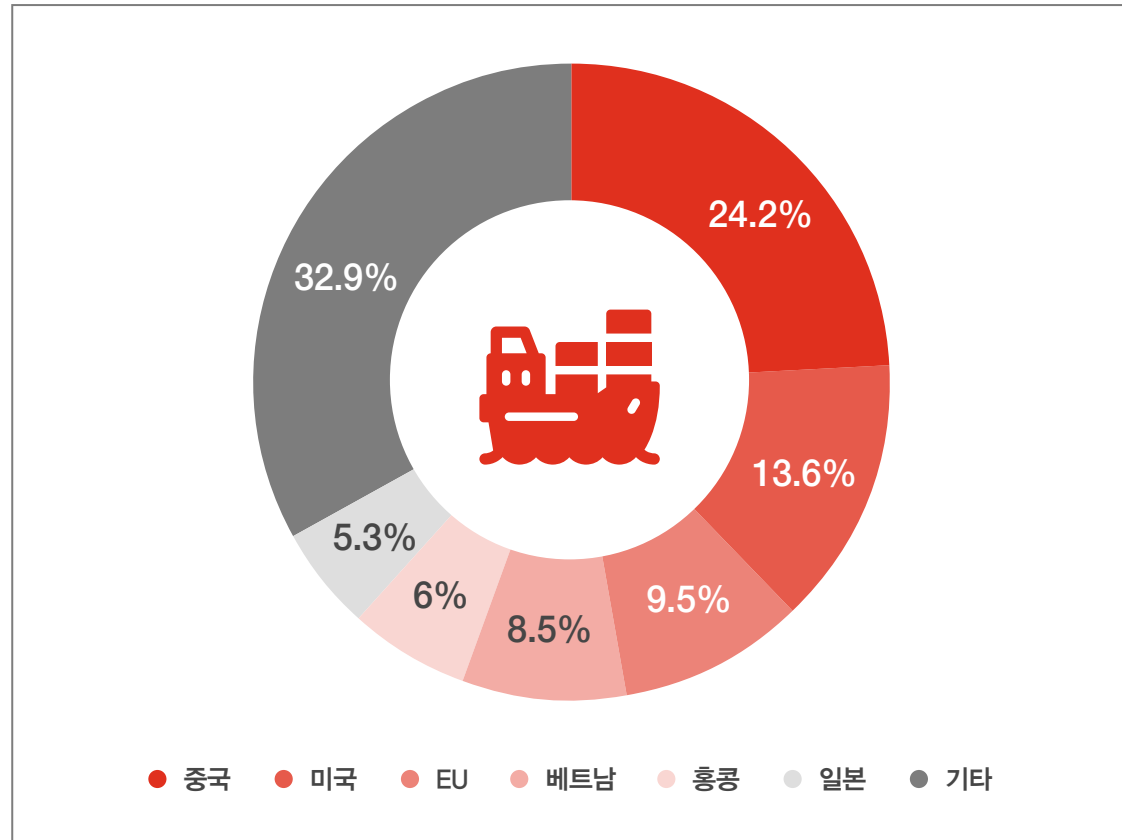


##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이유

WHO는 2020년 1월 30일에 코로나19에 대해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이후 3월 11일(스위스 현지시간 기준) 결국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을 하기 이르렀다. 문제는 아직 치료제 개발 등 코로나19의 종결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의 삶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중국 전체, 한국, 일본 등 일부 아시아지역에서의 문제로 마무리되었다면 그나마 글로벌 경제에의 부정적 영향은 중국발 공급 밸류체인의 문제로 한정되었겠지만 지금은 미국과 EU까지 포함되어 글로벌 소비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한국의 국가별 수출비중 (2018년 기준)



코로나19가 SARS나 메르스 때보다 글로벌 경제에 훨씬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1)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중국이 그 당시보다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졌고, 2) 질병의 확대 범위가 한층 넓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고, 글로벌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소비재 판매 30~35% 수준, 원자재 소비 50~60%)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까지 글로벌 경기를 지탱해 왔던 미국마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영국 포함), 중국의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각각 23.6%, 24.7%, 15.3%로 세 지역의 비중은 60% 수준으로 그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소비위주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부진은 글로벌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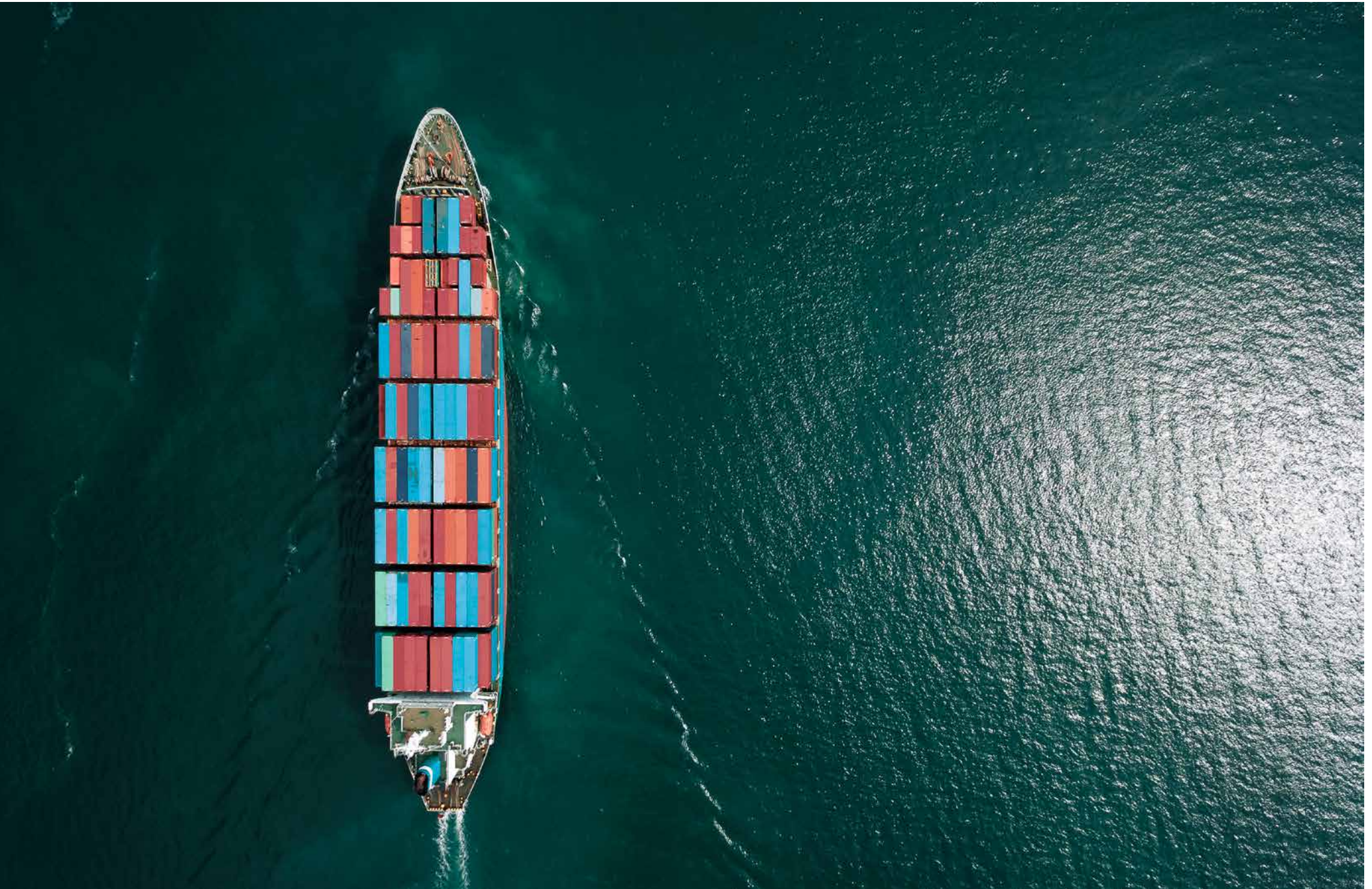
2002년 SARS와 2019년 COVID-19간의 중국 경제 위상 비교

구분	중국 비중	2002년	2019년	비고
구매력 평가 기준	세계 GDP 대비 (US\$ 기준)	8.3% (4.3%)	19.3% (17%)	경제성장 둔화 ↓ 기업부실 ↓ 금융위기 발발 ↓ 글로벌 경제 치명적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중국 수입 비중	4.5%	13.5%	
유효수요 기준	원자재 소비	10~20%	50~60%	
	1) 원유	6.6%	13.5%	
	2) 철강재	21.0%	64.3%	
	3) 구리	17.8%	53.3%	
	4) 알루미늄	16.5%	57.3%	
	소비재 판매			
	1) 반도체	5.0%	34.6%	
	2) 스마트폰 <sup>주1)</sup>	11.2%	29.2%	
	3) PC	2.4%	20.0%	
	4) 승용차	7.3%	34.5%	
부채 기준	부채 비중 <sup>주2)</sup>	120%	260%	

주1. 2002년 스마트폰 판매는 일반 무선통신기기 기준

자료: RealInvestmentAdvise.com

주2. 개인 및 기업, 정부 등 비금융부문/중국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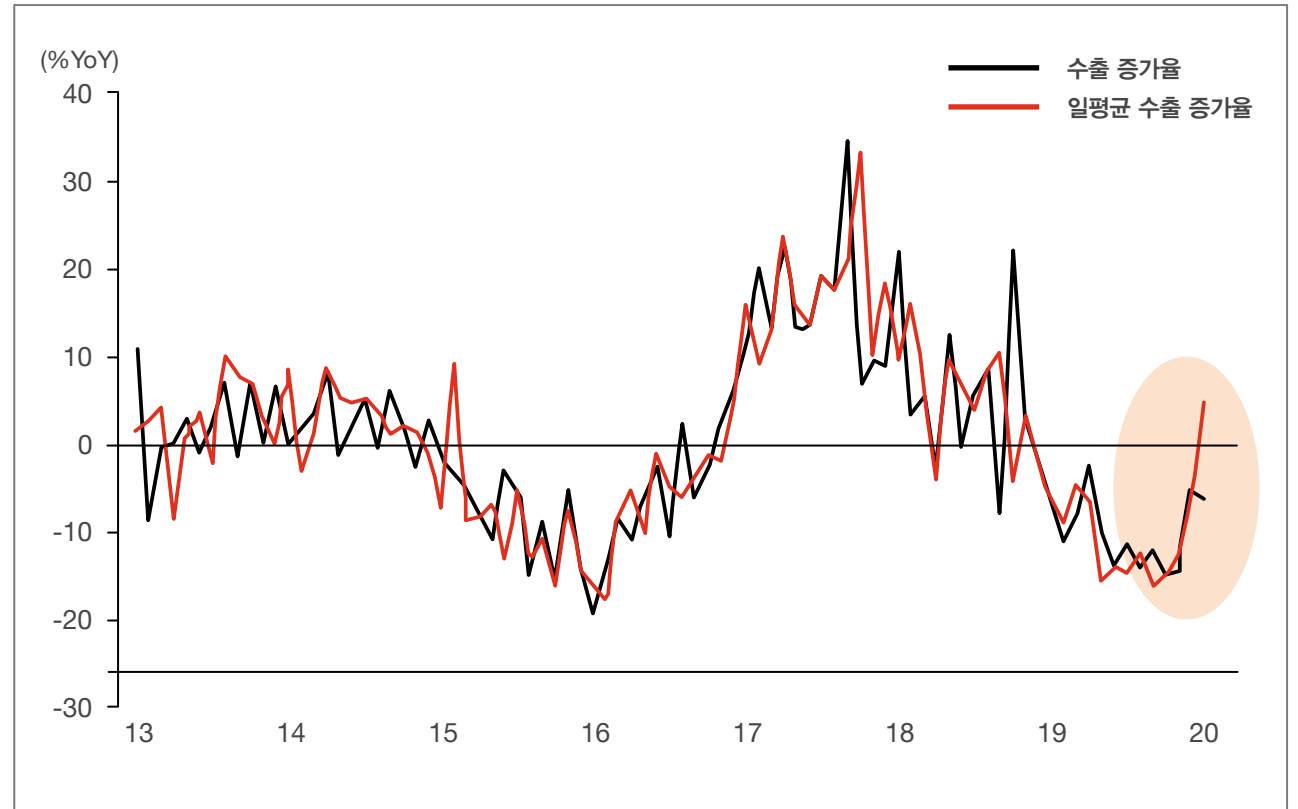
##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대응

이런 글로벌 경제 상황하에서는 국내 경기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내수 경기 부진과 함께 수출 역시 불안하다.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37.5%(2017년 기준, 수출의존도=전체 수출액/GDP)로 글로벌 상황에 민감한 편이다.

통상 수출은 계약 이후 통관까지 평균 1.5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금년초 14개월만에 일평균 수출이 증가하는 등 반등을 보이던 국내 경기는 코로나19가 1월 말 이후 급속도로 번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3월 이후 재차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파격적으로 제로 금리로의 인하와 QE4를 단행했다. 한국은행 역시 사상 최초로 0%대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한국의 현 경제수준 상 적정 금리수준이라 할 수 있는 0.75%에 기준 금리가 도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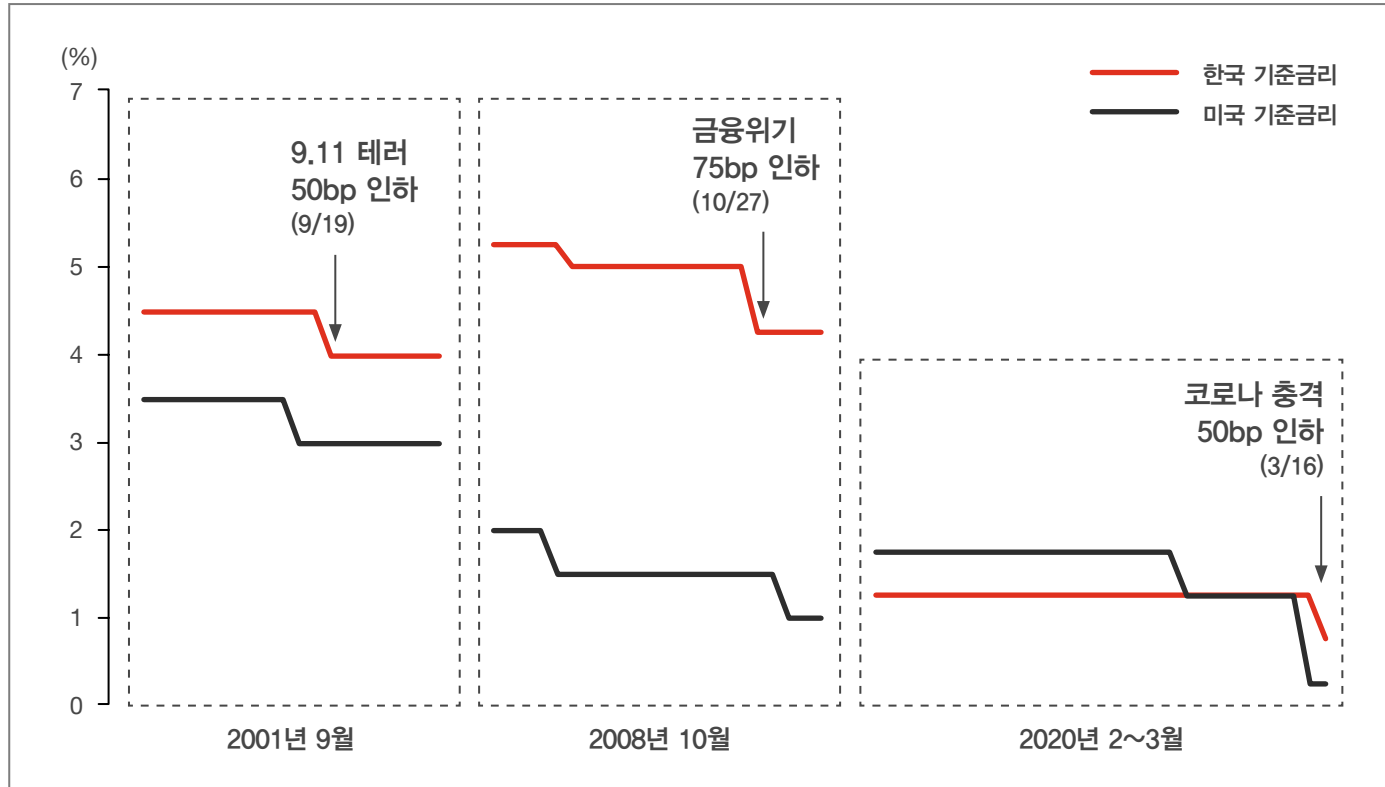
더불어 3월 19일에 한미 간 6개월 동안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월 일평균 수출, 14개월 만에 YoY +4.8% 증가 반전



자료: 관세청

한은, 긴급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0.75%로 전격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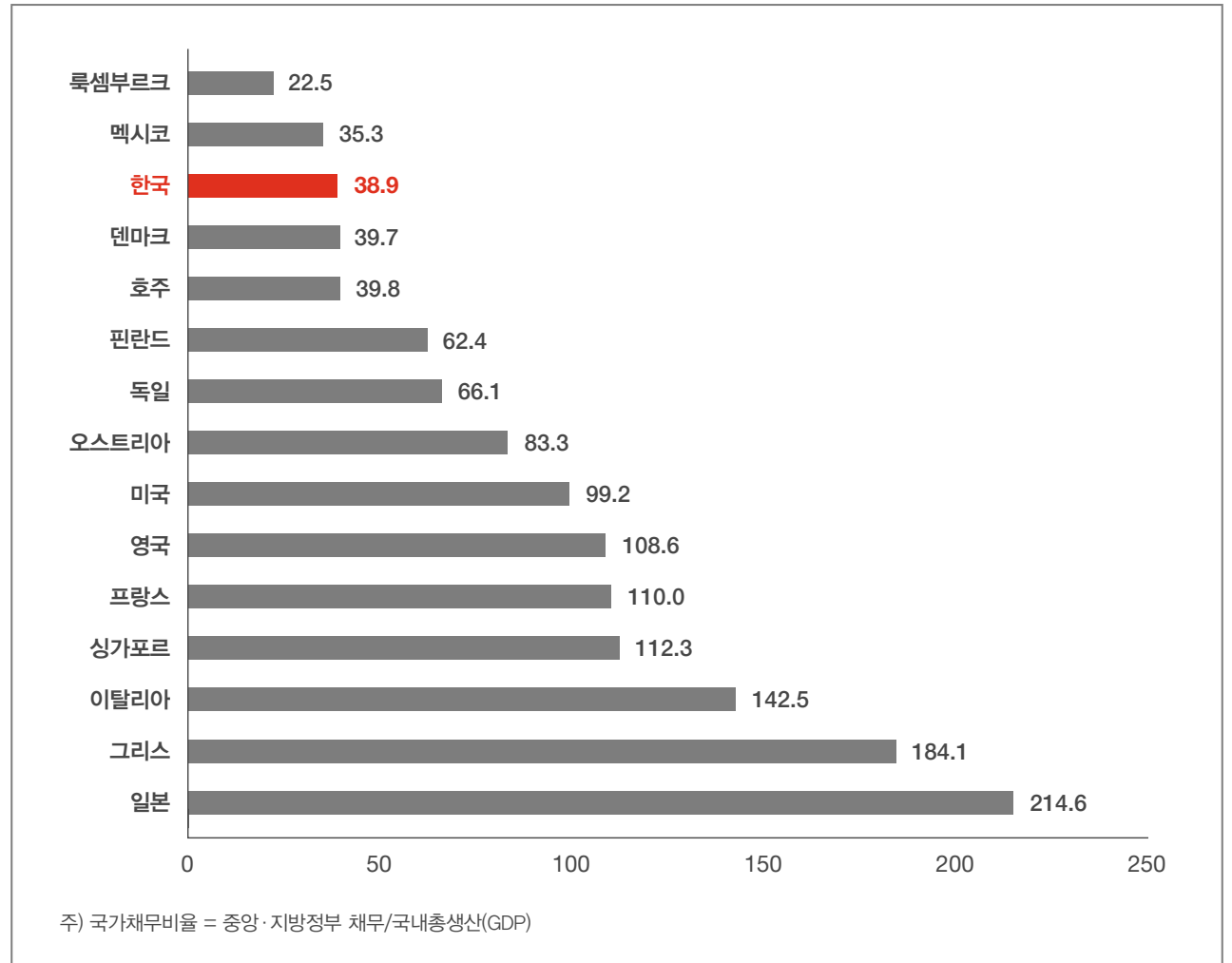
한국: 코로나19 관련 주요 대책 (2월 말 이후)

일시	정책	주체	내용
2/27(목)	통화정책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출지원(기준금리 동결)</b></li> <li>✓ 한국은행, 금융지원 확대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원 확대 (25조원 ⇒ 30조원)</li> </ul>
2/28(금)	재정정책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b></li> <li>✓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극복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P-CBO 발행 등) 2.5조원</li> <li>*금융기관(금융중개지원대출, 공공기관 투자 확대, 금융권 공급 확대 등) 9조원</li> </ul> </li> <li>✓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5% ⇒ 1.5%)</li> </ul>
3/4(수)	재정정책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추경예산 11.7조원 편성(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및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 등)</b></li> </ul>
3/16(월)	통화정책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임시 금통위에서 금리 50bp 인하(1.25% ⇒ 0.75%)</b></li> </ul>
3/17(화)	통화정책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25% 확대(국내은행 40% ⇒ 50%, 외은지점 200% ⇒ 250%)</b></li> </ul>
	통화정책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한국은행-미 연준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b></li> <li>• <b>한국은행 채권시장 안정 및 RP 매각 대상증권 확충 위해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b></li> <li>✓ 매입규모: 1.5조원    ✓ 매입대상: 3년, 5년, 10년물 국고채</li> </ul>
3/19(목)	재정정책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한국,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발표</b></li> <li>✓ 규모: 50조원 + @</li> <li>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영세·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지원 등</li> <li>②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의 완화: 원금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신용회복 지원</li> <li>③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의 안정장치: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li> </ul>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국가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이외에 재정측면에서 운신의 폭이 적은 데 비해 국내의 경우는 아직 국가의 재정 여력이 비교적 양호한 상황(국가부채 비율 40%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재정정책도 추가적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기의 하방을 어느 정도 방어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OECD 회원국의 국가부채 비율 (2018년 기준)





“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록  
금년 초 반등 조짐을 보였던 국내 경기는  
다시 하락할 수 있다. 통상 수출계약 이후  
통관까지는 평균 1.5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3월 이후의  
수출 지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국내 산업별 영향 점검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점차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건강 관련 업종의 경우에는 그나마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교역이나 사람의 이동의 제한을 받게 되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전 산업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일부에서만 차질이 있었던 IT의 경우에는 미국, 유럽 쪽의

확산으로 소비에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공급측이 아닌 수요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산업별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정적 우위에 있는 산업으로는 중국관련 소비업 (면세점, 화장품 등) ⇒ 운송(항공, 해운) ⇒ 유통·미디어(오프라인) ⇒ 보험 ⇒ 자동차 ⇒ 철강·금속 (단기) ⇒ IT(가전, 핸드셋, 반도체) 순이다.

그나마 긍정적 우위에 있는 산업으로는 1) 공급 측면에서 보면, 장비 발주지연으로 중국과의 OLED 기술격차를 확대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 디스플레이와 2) 전형적인 온라인 기술의 핵심인 통신, 3) 비대면화의 최대 수혜인 온라인 유통과 4) 질병에 대한 면역력 증가를 위한 건강식품 및 제약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헬스케어 산업 등이다.

###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Summary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영향	업종	주요 영향
부정적	여행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으로 확산됨에 따라 당분간 글로벌 여행 수요 부진은 불가피할 전망 (국가 간 여행 등 이동금지 강화 추세)</li> <li>• 이에 따라 연관산업인 호텔 등 숙박업, 렌트카 등 관련 산업의 부정적 영향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임</li> </ul>
	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간 여객 이동 통제로 항공 국제선 등 여객운송은 직접적인 손실 불가피</li> <li>• 국가 간 화물 운송도 가동을 감소, 수요부진 등 경기침체 영향으로 손실 확산</li> <li>• 정부의 지역간 이동 통제로 항공, 도로, 철도 등 운송 업계의 손실 확산</li> <li>• 다만 택배 물동량 증가로 육운업체(CJ 대한통운 등)의 수요는 증가 예상</li> </ul>
	유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심리 위축으로 생필품·질병특수품을 제외한 소비재의 수요 급감</li> <li>• 온라인 거래 증가, 오프라인 트래픽 감소 전망</li> <li>• 면세점 수요 감소 예상(시내 면세점 매출의 90% 타이공)</li> <li>• 중국 사스(2002.12), 한국 메르스(2015.5) 사례 감안 시, 소비지표 영향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는 부정적 영향 불가피</li> </ul>
	보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손보사 장기 위험 손해를 개선                      ✓ 병원내 감염에 대한 우려로 병의원 방문 감소 ⇒ 의료비 청구 감소</li> <li>• (중장기) 금리하락으로 인한 보증부채 부담증가와 투자수익률 하락 등 경영환경 악화, 콜센터 집단감염에 따른 영업력 약화로 신규 보험수익 증가도 어려운 상황</li> </ul>

영향	업종	주요 영향
부정적	화학·정유·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화학:</b> 전방산업 수요, 중국 시장 및 유가의 영향을 받는 구조임.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의 전방 생산 수요 급감 및 유가 급락으로 인한 spread 악화로 <b>화학 회사들의 이익 급감 예상</b></li> <li>• <b>자원 개발:</b>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및 유가 하락으로 <b>신규 탐사 및 개발활동 보류 및 철수. 기존 투자건에 대한 손상이슈 발생</b></li> <li>• <b>정유 업종:</b>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 간의 치킨게임으로 정유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정제마진이 (-)로 돌아섬에 따라 높은 가격에 매입한 원유재고를 판매할수록 손실폭이 확대. <b>재고평가손실로 인하여 정유사들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짐</b></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단기) 생산 차질</b>                      ✓ Tesla, Gigafactory Shanghai 임시 폐쇄: 중국 내 Model 3 생산 보름 정도 지연 예상                      ✓ 쌍용차 2/4~12 섯다운, 기아차 생산 감축, 한국GM 특근 취소, 현대차 휴업 불가피                      ✓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로 자동차 공급 Value chain 차질</li> <li>• <b>(중장기) 우한 지역내 가동 중단된 중국 동풍그룹, 일본 JV 업체들의 피해가 커 국내 업체 반사수혜 예상.</b> 다만 글로벌 수요 심리 악화로 전반적으로 <b>자동차 산업의 절대적 판매 수량은 감소 가능성 높음</b></li> </ul>
	철강·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성장률 둔화 등 국내외 수요 위축으로 철강·금속 가격은 <b>단기적 조정 불가피</b></li> <li>• 다만 <b>사태 진정 국면 도래시, 유동성 및 인프라 투자 확대 중심의 중국 경기부양기조에 긍정적 전망</b></li> </ul>
	제조업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조치에 의한 업무 효율 저하와 단축 근무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효과</li> </ul>
	IT	핸드셋

영향	업종	주요 영향
부정적	IT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제조사: 삼성전자 가전 셧다운 공장 임시 가동 중단</li> </ul>
다소 부정적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의 경우, 삼성(Xian), SK 하이닉스(Wuxi), Intel(Dalian), CXMT(DRAM, Hefei)의 영향 제한적</li> <li>• 수요의 경우, 서버보다는 스마트폰에 대한 <u>부정적 영향 존재</u></li> </ul>
다소 긍정적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널업체: 수요 둔화보다 공급 축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해 패널가격 상승 수혜</li> <li>✓ LGD, 광저우 대형 OLED 라인의 가동 램프업 지연: <u>다소 부정적</u></li> <li>✓ 삼성D, <u>중국 업체들의 중소형 Flexible OLED 장비 발주 지연: 중소형 OLED 라인 격차 확대로 긍정적</u></li> <li>• 국내 장비업체, 중화권 장비 발주 지연 가능성 확대: 부정적</li> </ul>
긍정 우위	제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염병 확산으로 일부 약품의 호황 발생(마스크, 소독제, 건강식품 등). 타 산업 대비 양호</li> <li>✓ <u>백신개발 기업, 진단 기업은 직접적 수혜</u></li> <li>✓ 수액, 소염제, 해열제 등 <u>기본 의약품 처방 증가로 전반적으로 긍정적</u></li> <li>✓ <u>건강기능식품(면역력 향상 등) 관련 매출 증가</u></li> </ul>
	통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출 빈도 하락에 따른 통신 수단(인터넷, 유무선 통신)의 활용도 증가</li> </ul>



##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코로나19 사태의 종결 시기는 지금 현재 어느 누구도 단언하기 쉽지 않다. 다만 국가간 정책공조가 효과를 발휘하고 치료제가 신속히 등장한다면 지금의 글로벌 상황은 반등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SRC 이은영 Director (eunyoung.lee@pwc.com)

[pwc.com/kr/covid-19](http://pwc.com/kr/covid-19)

---

## Samil Research Center

삼일리서치센터(Samil Research Center, SRC)는 삼일회계법인의 산업 전문가 조직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하는 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을 포함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위한 경제, 산업 지식을 제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통한 고객 기업 가치 제고를 추구합니다.

S/N: 2003F-RP-028

© 2020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